

민추본 미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추고는 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흥)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2012 평화 통일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부장 지흥 스님은 "공모전은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를 상생과 공존의 원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입상한 미디어 콘텐츠는 향후 평화통일교육, 대중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는 △ 최우수상 추고는 (통일이 된다는 건) △우수상 김가연 (하나의 나무) 김성은 (우리에게 통일은 '내일'이다) △장려상 허종탁 (남북 소통이 필요하다), 이승주 (평화통일), 박건형 (백두산에 가기 위해서), 최계연 (평화농활), 김영준 (그 아이의 바람) 등이다.

정혜숙 기자

진흥원, 군중교구에

1억원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11월 13일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자광 스님)에 군 포교 활성화 기금 1억 원을 지원했다. 군중교구는 후원금을 격지·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연수·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규철 이사장은 후원금 전달 후 "군승들과 불자 장병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 불교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군 불교 진흥을 위해 매년 군중교구를 후원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후원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백양사 승풍실추

전원 공권정지 3년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은 11월 15일 제97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기소된 토진 스님 등에 대해 공권정지 3년 징계를 결정했다.

호법부는 지난 7월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인 토진 스님 등 7명의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청구했으나 당사자들이 소임에 몰려나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한국불교의 과제는 '도덕성 회복'

'불교사회학' 여론 조사'로 살펴본 불교 현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적 자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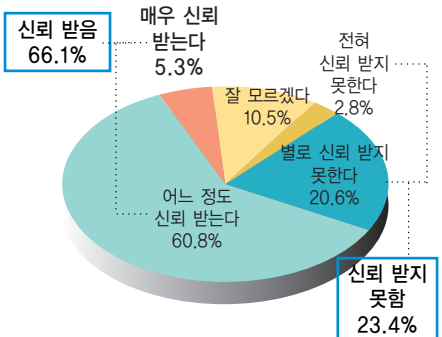
실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민단체(34.3%)를 가장 신뢰했고, 종교 단체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4%에 불과했다. 단순 수치로만 5배의 차이다.

이 같이 국민들이 종교단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정 문제와 도덕성 실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 한해 불교계는 백양사 승풍 실추 사건으로, 개신교계는 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조사에서도 종교 단체의 재정 투명성 부분에 76.6%의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국민들의 66%는 불교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었으나,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지난해에 이어 가톨릭(27.1%)이 1위에 올랐다.

불교와 개신교의 내홍에 가장 수혜자는 가톨릭이다. 실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43.3%로 여전히 1위를 수성했지만, 전년보다 10%이상 이 떨어졌다. 불교 역시 지난해 23.7%에서 19.1%로 하락했고, 가톨릭만 17.6%에서 24.1%로 상승해 불교를 제쳤다.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들이 한국 종교계에 주문하는 덕목은 바로 도덕성(32.1%)이었다. 종교의 생명인 청렴성(14.2%), 공정성(13.8%)도 국민들의 요구들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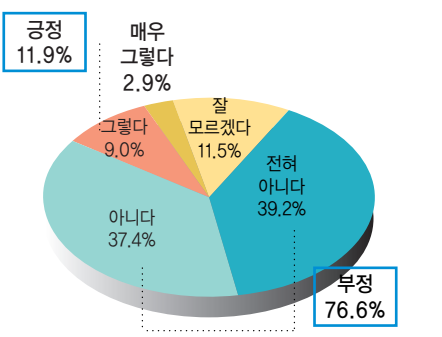


한국불교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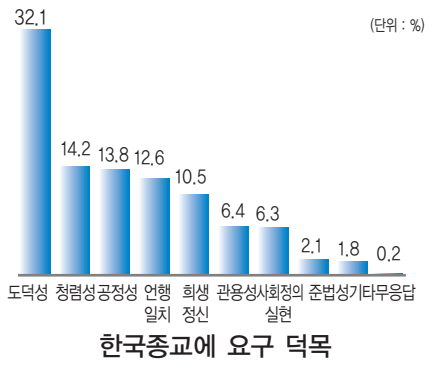
국민 60% 불교 신뢰하나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 재정 투명도는 '바닥 수준' 20~30대 불교에 희망적 하위층 포교에 신경써야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20~30대와 하위층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사회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해 20대와 30대는 불교(20.9, 26.7%)를 꼽았고, 월평균 수입이 199만원 이하인 하위층에서도 불교(24.3%)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한 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20대가 불교(26%)를 가장 신뢰했고,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중·하산계층도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가톨릭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줄여갔지만, 최근 들어 불교계가 전향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 멘토' 법륜, 혜민 스님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힐링 트렌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 재정 투명성



한국종교에 요구 덕목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교와 개신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는 세대별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톨릭은 전 세대에 걸쳐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불교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성과 청렴성 확립이 시급하다"며 "또한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위 계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재가교육 외길 30년, 새 시대 맞다

동산반야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1982년 창립된 이래 재가불자 교육과 수행의 대표로 활동해 온 동산반야회 창립30주년을 맞았다.

재가불교운동의 일환으로 고(故) 김재일 법사가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설립한 동산반야회는 재가불자 기초교리강좌를 비롯해 현대식 교육을 교계 최초로 실시해 신행문화를 주도해왔다. 동산반야회는 1992년 불교 최초의 2년 교육과정인 '동산불교대학', 3년 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동산한글불교의식교육원' 등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불교계 교육환경이 다양, 전문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동산불교대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 교리교육과 차별된 불교미술, 불교한문, 다도, 불교장례문화, 사찰음식문화 강좌 등을 개설했다. 이런 강좌들은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 1998년 제6차 전국교불만일회를 결성, 열매결사대회를 매년 열며 신행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는 창립 당시의 교육과 수행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공익단체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법회에는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성불원 주

지 현각 스님, 금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안동일 명예이사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진장 스님은 이날 "지난 30년간의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동산반야회가 자리할 수 있었다"며 "불자 모두가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상우 이사장을 비롯한 동산반야회 임원진들은 30년 간 동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안동일 명예이사장 등 공로자들을

최초 2년제 불교대학 설립

전문교육·신행 이끌어

을 치하하고 공익단체로 새로운 시대 개막을 다짐했다.

안동일 명예이사장에게 자랑스러운 동산인상 등이 수여됐으며 전임 임원진에는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이상우 이사장은 법회에서 "교육과 신행활동 선도하는 입장에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동산반야회의 발전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 이어 공연장에서 는 기념공연과 동산가족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산반야회 30주년 기념식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새로운 불자신행 문화 창달을 서원했다.

종책 질의·의원 출석률 긍정적

NGO모니터단, 조계종 총회 모니터 결과

교계 NGO 활동가로 구성된 중앙총회 NGO모니터단은 지난 11월1~7일 열린 제 192회 중앙총회 정기회 모니터링 결과를 11월14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평가서에서 "이번 회기에서 일부 총회의원 스님들은 중무기반의 사업에 대해 미리 연구하거나 조사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며 "지난 191회 평균 출석률이 66%인 것에 비해 이번 회기에는 평균 75%가 참석하는 등 그나마 고무적인 변화가 발견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총회의원 스님들이 발연 도중 발원권 없이 끼어들거나 큰 소리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단순비교하며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니터단이 제시한 총무원 예산편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과 포교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총단의 예산삭감 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신종일 기자

"UN과 협력 통해 포교 영역 확장"

포교원, UN방문해 평화 메시지 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뉴욕 UN본부에 UN평화사절단(단장 수불)을 파견해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전했다.

UN평화사절단은 미국 워싱턴의 엘리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참배를 시작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과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뉴욕 불광선원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은 UN평화사절단 방문은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종교계 처음으로 추모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해외포교

현황을 둘러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UN본부 방문에서는 '천년의 문화·천년의 평화'를 주제로 UN주재 한국대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정공연이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UN과 협력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해나가겠다"며 "교인 포교를 비롯해 국내외 외국인 포교 등 포교활성화에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왼쪽 두 번째)과 수불 스님(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UN평화사절단 대표들은 UN뉴욕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가운데)을 만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불교신문 제공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